

1인 가구의 인구·경제·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장패턴과 공간분포

이희연* · 노승철** · 최은영***

Growth Pattern and Spatial Distribution of One-person Households by Socio-Economic Demographic Characteristics

Hee Yeon Lee* · Noh Seung Chul** · Choi Eun Young

요약 : 본 연구는 지난 10년(1995-2005년)동안 급증하고 있는 1인가구의 인구·경제·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장패턴을 기술하고, 1인가구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공간분포 특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1인가구의 증가는 젊은 층의 결혼 지연과 독신, 중년층의 이혼율 증가와 노령화에 따른 독거노인의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1인가구의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교육수준에 따라 상당히 차별적인 1인가구의 성장 패턴을 보이고 있다. 1인가구의 연령, 학력, 주택소유 및 주택유형을 기준으로 하여 이들의 공간분포 패턴을 비교해보면 매우 대조적이고 불균등하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수준이 높고 자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젊은 싱글족은 소수의 대도시에 집중해있는 반면에 교육수준이 낮고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독거노인들은 주로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고학력의 젊은 연령층의 경우 경제적 상황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광역시나 대도시에는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삶을 살고 있는 그룹과 월세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그룹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1인가구들도 상당히 이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룹에 속하고 있는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 집중분포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해당 지자체가 직면하게 되는 경제·사회적 문제는 상당히 다를 것이며, 이에 따른 사회복지정책도 차별화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1인가구, 공간분포, 성장패턴, 인구·경제·사회학적 특성

Abstract : This paper aims to describe the rapid growth of the one-person households in terms of the socio-economic demographic perspectives during the period of 1995-2005 and to analyze the spatial distribution patterns based on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one-person households. The increase in the divorce ratio in the middle-aged, the growth of unmarried people the young generation, and the increase of life expectancy in the old generation are explanatory factors for the rise and diversification of one-person households in Korea. The rapid increase of one-person households is accompanied by a diversification in their age, gender, marital status, education level. Uneven distribution of one-person households depends on their age, level of education and dwelling type. Highly educated young adults residing in their own apartment are generally concentrated in major cities, whereas senior citizen with their own single house who lives alone are mostly in rural area. One-person households of the highly educated young adults are significantly polarized in the light of their the living standards. In particular, metropolitan area or big cities are mixed with those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Professor,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leehyn@snu.ac.kr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Ph.D Student,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goonise@snu.ac.kr

*** 통계개발원 통계사무관(deputy director,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choiey@korea.kr

who have their own apartment and are financially capacity and with those who rent in a detached single house. As such, one-person households have considerably heterogeneous characteristics. Therefore, each local government will face different economic and social problems based on which group of one-person households are increasing and where they are concentrated in. To this extent, the local government should have differentiated welfare policy according to its own respect.

Key Words : one-person households, spatial distribution, growth pattern, socio-economic demographic characteristics

1.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지난 20여년 동안 우리나라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만혼 및 독신 여성의 증가로 인한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 그리고 이혼율이 급증하는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가족구성 및 가구형태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전통적인 가족형태와는 다른 독신가족, 편부·편모 가족, 재혼에 따른 복합가족 및 비동거가족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것은 혼자서 독립적으로 살고 있는 1인가구의 증가이다.

우리나라의 1인가구 증가추세를 보면 1970년 전체 가구의 3.7%를 차지하던 것이 1985년에는 6.9%, 1995년에는 12.7%, 2005년에는 20%로 크게 증가하면서 2000년대 들어와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커지기 시작하였다. 1인가구 증가율은 통계청에서 추계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여 2010년 잠정 집계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는 약 404만가구로 전체 가구의 23.3%에 달하고 있다. 이는 10년 전보다 81.6%나 증가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4가구 중 한 가구는 나홀로 가구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1인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사항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1996년 1인가구는 1.54억명에서 2006년 2.26억명으로 10년만에 약 33%가 늘어났으며,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보면 100가구 가운데 12가구(11.8%)는 1인가구로 추정되고 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북유럽국가들의 1

인가구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노르웨이는 전체 가구의 38.5%, 독일 37.5%, 프랑스·벨기에에는 33%이다. 특히 유럽의 도시들은 나홀로 가구가 전체 가구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파리의 경우 거의 절반에 이르고 있으며, 동경도 1인가구 비율이 45%에 달하고 있다. 2008년 다보스 세계경제 포럼에서 '싱글경제의 형성'을 핵심주제어로 언급한 것은 이러한 1인가구 증가 추세를 주목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걸쳐 1인가구의 성장 추세와 형성 원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Hall *et al.*, 1997; Kaufman, 1994; Koesoebjono, 1984; Kramarow, 1995; Wall, 1989; Witte & Lahmann, 1988). 이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후기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개개인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로 인해 1인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구조의 변화와 경제적 여건에 의해 원하지 않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 비율이 상당히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김혜영, 2007; 변미리 외, 2008). 특히 2000년대 들어서면서 1인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청년실업 증가, 소득 부족으로 인한 결혼 지연, 이혼율 증가로 인한 중·장년층의 1인가구 증가 및 고령화로 인한 독거노인 가구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1인가구의 구성을 보면 청년층에서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1인가구 내에서 양극화 현상도 매우 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인가구와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 차이는 2006년 156만원에서 2009년 170.3만원으로 9% 이상 확대되어 1인가구의 빈곤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운데, 1인가구 중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이 넘는 가구의 비율은 2006년 5.94%에서 2009년 7.95%로 약 2% 높아져서 1인가구 내에서의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통계청, 2009). 변미리 외(2008)는 연령층에 따른 1인가구의 다양성을 네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즉, 고용이 불안정하여 일자리를 찾아 전전하거나 일자리를 찾지 못해 아르바이트에 의존하며 지내는 20-30대의 산업예비군 그룹,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안정된 수입을 갖고 있는 30-40대 골드 미스·미스터 그룹, 이혼으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어 우울하게 지내는 40-50대의 불안한 독신자 그룹,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독거노인으로 지내는 60대 이상의 실버세대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1인가구 내에서도 상당히 이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룹에 속하고 있는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 집중분포되어 있는가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직면하게 되는 경제·사회적 문제는 상당히 다를 것이며 그에 따라 사회복지정책도 차별화되어야 함을 시사해준다. 예를 들면 독거 노인가구의 증가는 지역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복지비용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반면에 경제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30-40대 미혼층의 대도시로의 집중화는 중소도시의 인력난을 야기시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특성을 지닌 1인가구가 전국 어느 지역이나 동일하게 분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인가구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1인가구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공간분포에 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1인가구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성장패턴과 공간분포 특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2) 연구방법 및 자료

1인가구는 단독가구나 독신가구와 혼용되고 있으나, 통계청에서는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를 1인가구로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 1인가구로 분류된 가구 가운데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1인가구에는 독신가구와는 달리 배우자가 있어도 동거하

지 않고 사는 기러기 가족이나 주말 부부 등도 1인가구에 포함되었다¹⁾.

본 연구에서는 먼저 1995-2005년 동안 1인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장 패턴을 분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1인가구별 소득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가구자료와 주택자료를 연계시켜 가구특성별 주택점유형태와 주택유형을 기준으로 하여 1인가구의 경제적 수준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정보로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둔 것은 1인가구의 연령·교육수준·주택환경 유형별 공간분포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자발적으로 독신으로 지내는 골드 미스·미스터 그룹,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 젊은 연령층 그룹 그리고 경제적인 면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지내는 독거노인 그룹 등 1인가구의 다양한 특성별 공간분포 패턴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2. 선행연구 검토

우리나라에 비해 1인가구 비율이 상당히 높은 선진국의 경우 지난 30여년간 1인가구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연구 방향이나 흐름도 다소 변화되고 있다. 1980-90년대 이루어진 연구들은 주로 1인가구의 증가를 시계열적 차원에서 분석하거나 1인가구 형성의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추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Koesoebjono(1984)는 네덜란드를 대상으로 하여 1960-81년 동안 1인가구의 증가 추세를 인구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이어서 유럽을 대상으로 1인가구의 증가추세를 분석하거나(Kaufman, 1994), 미국과 독일을 대상으로 1인가구를 분석한 연구(Witte & Lahmann, 1988),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를 대상으로 1인가구의 성장추세를 분석하였다(Hall *et al.*, 1997). 또한 1인가구 가운데서도 주로 노인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Beland, 1987; Kendig & McCallum, 1986; Kramarow, 1995)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반면에,

젊은 연령층의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Haurin et al., 1997; Young, 1987) 및 중년층 1인가구에 초점을 둔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이었다(Glick, 1994).

2000년대 들어서면서 1인가구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다변화되었다. Wulff(2001)는 1인가구의 성장과 변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면서 1인가구 내에서도 생애주기, 소득 등에 따라 주거특성이 상당히 차별화되어 나타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또한 국가적 차원이 아닌 도시를 대상으로 1인가구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Ogden & Hall(2000)은 프랑스 주요 대도시를 대상으로 하여 1인가구의 증가를 재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하였으며, Hall & Ogden(2003)도 런던의 도심부에서 1인가구의 증가가 나타나는 현상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한편 사회학적 관점에서 1인가구를 분석한 연구들도 이루어졌다(Banks, et al., 2009; Bennet & Dizon, 2006; Chandler et al., 2004; Quintan et al., 2006). 이들 연구의 초점은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분리에 따른 문제점을 고찰하였으며, 소득 불평등에 따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회정책적 함의를 부각시켰다. 그러나 최근에 이루어진 1인가구 연구 가운데는 지속 가능성과 관련시킨 연구도 이루어졌다(Gram-Hassen et al., 2009; Williams, 2007).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1인가구는 가족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1인당 자원, 에너지, 토지 소비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 효율성 측면이나 사회적 격리감을 줄이기 위한 함께 동거하는 주택(co-housing, collaborative housing) 공급이 바람직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인가구에 대한 연구 초기에는 주로 노인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독신가구의 경제상태와 소비 등에 초점을 둔 연구가 이루어졌다(성미지 · 이윤정, 2001; 심영, 2002; 여윤경, 2003; 이윤정 · 김순미, 2004). 그러나 2005년 인구주택센서스 조사 결과 1인가구 비율이 20%를 상회하게 되면서 1인가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고 연구주제도 다양화되었다. 특히 1인가구 증가로 인한 주택 수요와 주택 문제 및 주택 정책에 관한 연구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인가구 주택과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젊은 1인가구들이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

는 점을 강조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 계획 방안에 관한 연구(이지순 외, 2002), 도심에 거주하는 싱글층을 위해 주거와 사무환경이 조화된 복합공간의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김소연, 2004), 1인가구의 임차유형별 주택수요를 추정한 연구(권주안 외, 2007) 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1인가구의 주거현황과 주거선호를 토대로 향후 주택수요를 전망하였고 주택공급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조주현 · 김주원(2010)은 1인가구의 주택수요를 추정하면서 연령층별과 소득수준별로 주택수요가 달라지면 주택소비함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중요도가 어떻게 차별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밝혀주었다. 김옥연 외(2009)는 1인가구의 주거실태를 분석하였고, 신은진 · 안건혁(2010)은 가구통행실태자료를 이용하여 직장인의 소득에 따른 1인가구의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한편 사회학적 관점에서 1인가구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김혜영(2007)에서는 비혼 1인가구가 갖고 있는 가족의식과 생활실태를 조사하였고, 송유진(2007)은 사별 후 혼자사는 노인 1인가구의 지역별 분포와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외에도 남성 1인가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남성과 여성 1인가구의 재정상태를 비교·분석하거나(김년희 · 채정숙, 2005), 이들의 부채보유율 및 부채규모를 비교하거나(통계청, 2001), 또는 남성 1인가구의 경제구조를 분석한 연구도 이루어졌다(차정옥, 2006).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주로 서울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변미리 외(2008)는 서울시 1인가구를 네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별 특성에 따른 거주지 분포를 비교하면서 이들이 선호하는 지역 특성을 도출하였다. 신상영(2010)도 서울시를 사례로 하여 1인가구의 연령층별 밀집지역을 군집분석을 통해 유형화한 후 각 유형별로 지역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박주희(2007)도 서울시 1인가구의 거주지 분포변화를 입지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1인가구가 급증하면서 1인가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로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 문제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서울시만을 대상으로 하여 1인가구의 공간분

포나 주거지 특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전국적으로 구·시·군 차원에서 1인가구의 인구·경제·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공간분포 특성을 분석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3. 1인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장패턴

1995년 164만여 가구로 전체 가구의 12.7%를 차지 하던 1인가구 비율은 2005년에 317만여만 가구로 증가하면서 그 비율도 20%로 늘어났다. 지난 10년(1995-2005) 동안 1인가구 증가율(93.1%)은 총가구수 증가율(22.6%)에 비해 무려 4.1배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1인가구 증가율을 혼인상태별로 비교해 보면 이혼에 의한 1인가구 증가율이 268.5%로 가장 높았으며, 미혼 1인가구 증가율(88%), 유배우 1인가구 증가율(85%)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배우자와 사별한 1인가구 증가율이 72%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표 1 참조). 증가수로 보면 미혼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66만 가구가 증가하였고 이어 사별한 1인 가구가 41만 증가 하였으나, 증가율로 보면 이혼으로 인한 1인 가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즉, 1인가구 증가 가운데 사별에 의한 노인가구나 결혼을 미루고 있거나 자발적

싱글로 지내는 가구보다 이혼에 의한 1인가구 증가율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이혼에 의해 증가된 1인가구는 27만여 가구로 전체 1인가구 증가의 17.8%를 차지하고 있다. 그 결과 1995년 이혼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6.2%이던 것이 2005년에는 11.8%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에 미혼 1인가구 비중은 2005년에 45%로 1995년에 비해 오히려 약간 감소되었으며, 사별로 인한 1인가구 비중도 2005년에 31.6%로 감소되었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이혼율의 급증이 이혼 1인가구 증가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음을 말해주며, 이혼하는 경우 남자와 여자가 각각 1인가구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인가구 증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2005년 성별·연령층별로 1인가구의 혼인상태를 보면 젊은 남성 연령층의 경우 40대 중반까지도 미혼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1 참조). 혼인상태가 이혼인 1인가구는 40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2005년의 남성 평균 이혼연령 42.1세, 여성 38.6세이라는 점과 2010년 평균 이혼연령은 남성 45세 여성 41.1세로 상당히 연령층이 증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중장년층에서의 이혼에 의한 1인가구 형성 비중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남성의 경우 청장년층에서 배우자가 있으면서 비동거가족으로 지내는 비중이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60세 이후에는 사별로 인해 혼자 살고 있는 비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여성 가

Table 1. The growth of one-person households and change of the proportion by marital status
(1인가구의 증가추세와 혼인상태별 비중의 변화)

(unit; thousand households, %)

household		households			marriage status			
		all	one-person	proportion	unmarried	divorced	widowed	married
1995		12,958	1,642	12.7	46.2	6.2	35.5	12.1
2000		14,312	2,224	15.5	43.0	9.8	35.1	12.0
2005		15,887	3,171	20.0	45.0	11.8	31.6	11.6
1995-2005	growth	2,929	1,529		668	272	419	169
	growth rate	22.6%	93.1%	-	88.0%	268.5%	71.8%	85.0%

Source: Statistics, Population Census(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해당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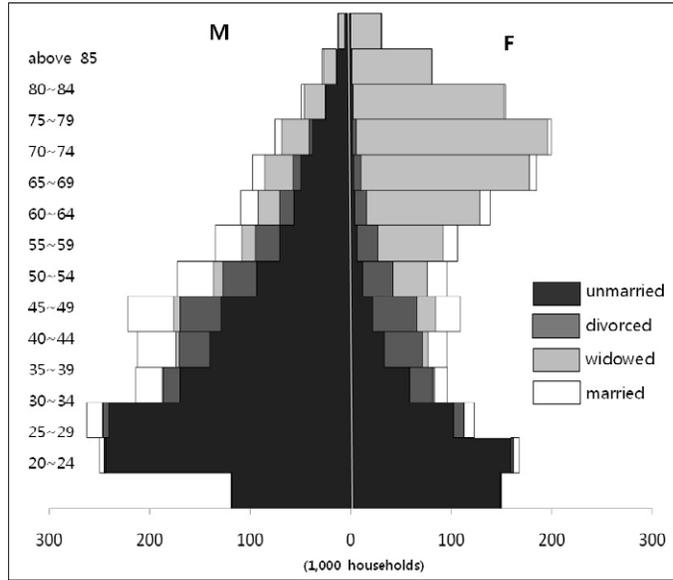


Fig 1. Population pyramid of one-person households with marital status by gender and age, 2005
(성별, 연령층별 혼인상태에 따른 1인가구 분포를 나타낸 피라미드, 2005년)

구주의 고령화와 여성 가구주의 1인가구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60세 이상 여성 가구주 비율은 1995년 31.6%였던 것이 2005년에는 34.4%로 상승했으며, 여성 가구주 중 1인가구 비중도 40%를 상회하고 있다.

이와 같이 1인가구가 형성되는 이유가 연령층별로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1인가구 전체 증가추세보다 연령층별 1인가구의 증가추세를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10년 동안 연령층별로 1인가구 증가추세를 보면 30대와 40대에서 1인가구의 절대적인 증가가 가장 많았다. 증가된 가구수를 보면 30대가 33.2만 가구, 40대는 31만가구로 30대와 40대 두 연령층에서 지난 10년 동안 증가된 총 1인가구수의 약 42%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1인가구 증가율을 기준으로 보면 최고령층인 80세 이상의 노년층의 증가율이 약 24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45~49세 연령층의 증가율(214%)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2 참조). 이렇게 30~40대 1인가구의 절대적인 증가는 청년실업 증가, 소득 불안정으로 인해 아직 결혼하지 못한 노총각/노처녀 그룹이거나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그룹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30대에서의 1인가구 증가는 초혼연령이 늦어지면서 미혼층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1995~2005년 동안 증가된 30대 1인가구수(33.2만) 가운데 미혼층 1인가구가 89.3%(29.6만)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40~44세 1인가구도는 약 15만여 가구가 증가하였는데, 이 가운데 미혼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51.2%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 미혼가구의 71.4%가 남성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40대 초반까지도 결혼하지 않은 남성은 여성에 비해 상당히 많음을 말해준다(표 2 참조).

한편 중장년층에서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 불안정 등으로 인해 최근에 높아지고 있는 장년층의 이혼 및 비동거가족(여성의 사회활동 및 경제력 증가, 자녀교육으로 인한 기러기 가족의 증가)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독거노인의 증가추세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전통적 가족관 및 부모 부양에 대한 의식이 변화하면서 자녀와 분리되어 생활하는 독거노인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동안 연령층별 1인가구의 비중 변화를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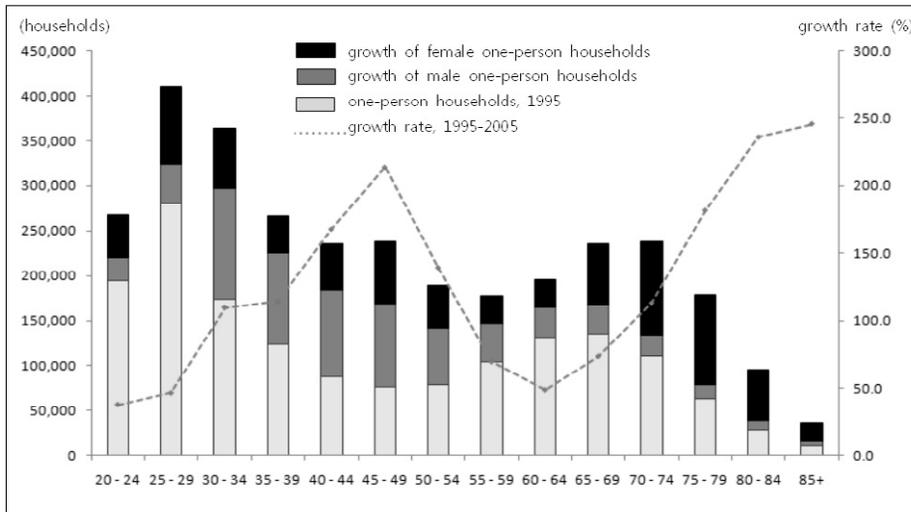


Fig.2. Growth trend of one-person households by gender and age, 1995-2005
(1인가구의 성별, 연령층별 증가추세, 1995-2005년)

Table 2. The proportion of the unmarried in the growth of one-person households by age, 1995-2005
(연령층별 1인가구 증가수에서 미혼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 1995-2005년)

age	growth				age	growth			
	all	unmarried	unmarried (%) ¹⁾	male(%) ²⁾		all	unmarried	unmarried (%) ¹⁾	male (%) ²⁾
20 - 24	73,475	32,742	44.6	13.7	55 - 59	72,644	10,469	14.4	53.2
25 - 29	130,386	128,778	98.8	34.4	60 - 64	63,827	5,660	8.9	49.3
30 - 34	190,338	178,576	93.8	65.4	65 - 69	99,621	3,552	3.6	41.4
35 - 39	141,759	117,955	83.2	72.2	70 - 74	126,004	1,989	1.6	34.5
40 - 44	147,756	76,023	51.5	71.4	75 - 79	115,148	989	0.9	23.8
45 - 49	162,319	46,807	28.8	65.1	80 - 84	67,012	455	0.7	23.1
50 - 54	109,991	21,094	19.2	57.3	above 85	25,903	166	0.6	27.7

Note 1): The proportion of unmarried households in one-person household growth by age in 1995-2005.

(1995-2005년 동안 각 연령층별 증가된 1인가구수 가운데 미혼 1인가구 증가수가 차지하는 비율)

2) The proportion of male household in one person household growth by age in 1995-2005.

(1995-2005년 동안 각 연령층별 증가된 미혼 1인가구 가운데 남성이 차지하는 점유)

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비교해보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그림 3 참조). 25-50세까지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1인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결혼 적령기인 30대의 경우 1인 남성가구가

상대적으로 많고 40대는 기리기 아빠가 되거나 이혼에 따른 싱글남이 더 많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50대 후반 이후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1인가구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후부

터 그 차이는 더욱 더 커지고 있다. 지난 10년동안 성별, 연령별 1인가구의 비중 변화에서 가장 심각한 측면은 한창 자녀와 함께 가족생활을 해야 하는 40대-50대 초반에서 남자와 여자 모두 1995년에 비해 2005년에 1인가구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 연령층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사업 실패와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또는 자녀 교육을 위해 이혼이나 비동거 생활을 하는 가구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남성과 여성의 연령층별 1인가구의 비율을 도시(동부)와 농촌(읍·면부)으로 나누어 비교해보면 상

당히 대조적인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그림 4 참조). 특히 여성의 경우 도시와 농촌의 1인가구 비율 격차가 20대에 가장 크게 나타나지만 점차 그 격차가 줄어들어 50대 후반 이후는 오히려 농촌의 1인가구 비율이 도시보다 더 높아지며 70대에 그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지고 있다. 이는 젊은 여성 1인가구는 주로 도시에 거주하는데 비해 60대 이후의 노인 여성 1인가구는 주로 농촌에서 할아버지와 사별하고 혼자 지내는 독거노인임을 말해준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도시와 농촌 간의 연령층별 1인가구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남성의 경우 40대 중반 이후에는 농촌의 남성 1인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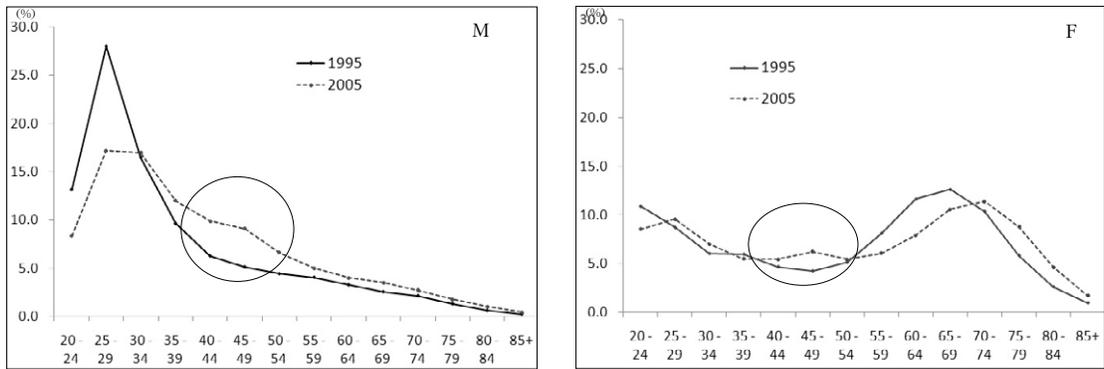


Fig.3 The changing trend of proportion of one-person households by sex and age, 1995-2005
(성별, 연령층별 1인가구의 점유율의 변화 추세, 1995-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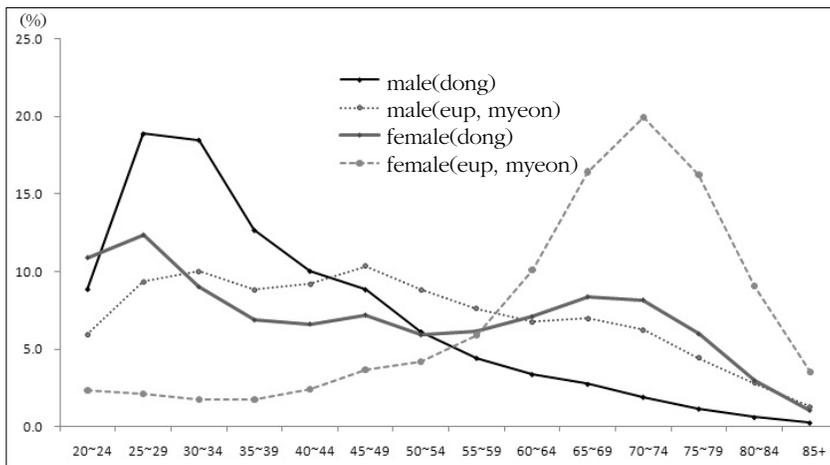


Fig.4. The comparison of age distribution of one-person households in urban and rural area, 2005
(성별, 연령별 1인가구의 비율의 동부와 읍면부 비교, 2005년)

비율이 도시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격차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커지면서 70대에서 가장 커지고 있다. 가장 대조적인 패턴은 젊은 남성 1인가구의 경우 도시 거주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에 노년 여성 1인가구의 경우 농촌에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10년간 교육수준별 1인가구의 성장추세를 살펴보면 대졸 이상의 1인가구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3 참조).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1인

가구는 지난 10년동안 약 64만 가구가 증가하여 총 증가 가구수의 41.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대졸 학력을 가진 1인가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1995년 1인가구의 20%를 차지하던 대졸 이상(대학원 포함)의 비중은 2005년에는 32.8%로 크게 늘어났다. 따라서 2005년 시점에서 1인가구 10명 가운데 3명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2005년 시점에서 성별, 연령별로 1인가구의 교육수준을 피라

Table 3. The growth of one-person households by education levels, 1995-2005
(1인가구의 교육수준별 증가추세, 1995-2005년)

(Unit: household, %)

	995		2005		1995-2005		
	household	proportion	household	proportion	growth	growth rate	share
uneducated	343,663	20.9	477,704	15.1	134,041	39.0	8.8
elementary	269,416	16.4	489,709	15.4	220,293	81.8	14.4
middle sch.	171,431	10.4	292,853	9.2	121,422	70.8	7.9
high sch.	528,561	32.2	870,155	27.4	341,594	64.6	22.4
university	307,363	18.7	942,899	29.7	635,536	206.8	41.6
graduated	21,942	1.3	97,355	3.1	75,413	343.7	4.9
total	1,642,376	100	3,170,675	100.0	1,528,299	93.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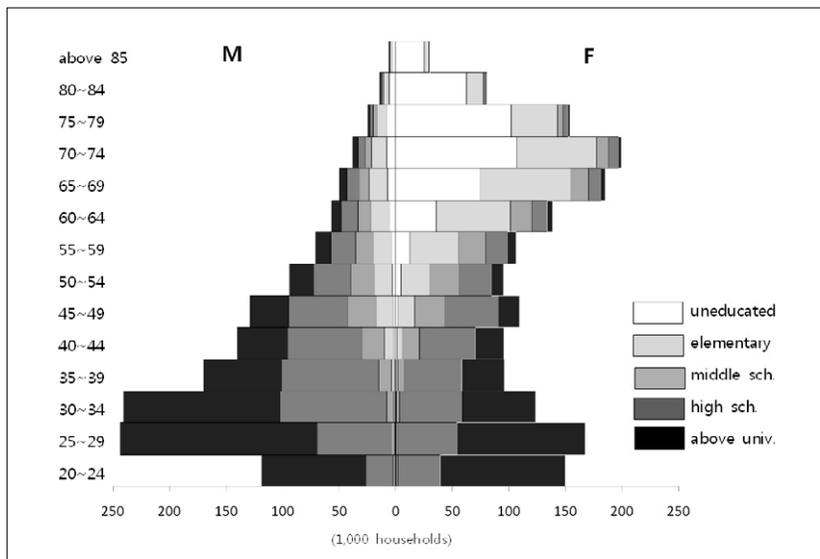


Fig.5. Population pyramid of one-person households with education levels, 2005
(성별, 연령층별 1인가구의 교육수준을 나타낸 피라미드, 2005년)

Table 4. The change of home-ownership type in one-person households, 1995-2005
(1인가구의 주택점유 형태 변화, 1995~2005년)

(Unit: household, %)

	1995		2005	
	households	ratio	households	ratio
owner	538,378	(32.8)	985,764	(31.1)
lease	510,476	(31.1)	762,482	(24.0)
rent	513,350	(31.3)	1,269,520	(40.0)
free	80,202	(4.9)	152,813	(4.8)
total	1,642,406	(100)	3,170,759	(100)

미드로 나타내면 그림 5와 같다. 남성의 경우 40대 전반까지도 대출 이상의 1인가구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그러나 50대 후반 이후 여성 1인가구의 경우 무취학과 초등학교 미만 학력을 가진 1인가구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70대 이후 여성 독거노인의 경우 학력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아마도 상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임을 시사해준다.

4. 1인가구의 주택환경 변화와 주택 특성

지난 10년(1995-2005) 동안 1인가구의 주택환경 특성의 변화를 먼저 주택점유 형태를 통해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1인가구의 경우 1995년에 비해 2005년에 자가 비중은 약간 낮아져 31.1%를 차지하는데 비해 차가 비중은 오히려 높아졌다. 차가 중에서도 월세 비중이 상당히 높아져 1인가구의 약 40%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자가 비율(55.6%)과 월세비율(19%)에 비하면 자가 비율은 24.5%가 낮고 월세 비율은 21%가 더 높아 1인가구의 경우 주택점유 면에서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한편 1인가구의 주택유형의 변화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줄어들면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비율이 상당히 증가하는 반면에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줄어들었다(표 5 참조). 이러한 경향은 전체가구의 주택형태 변화추세와 유사하다. 그러나 2005년 1인가구의 64.8%가 단독주택에, 21.1%는 아파트에 살고 있어 전체가구의 단독주택 거주비율(44.5%)과 아파트 거주비율(41.7%)에 비하면 1인가구의 단독주택 거주비율은 약 20% 정도 더 높고, 아파트 비율은 약 20% 정도 더 낮은 편이다.

1인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택환경 특성을 보다 세분하여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전반적으로 볼 때 가족가구에 비해 1인가구의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상당히 높지만, 1인 자가 가구의 경우 가구주 학력에 따라 단독주택 거주비율과 아파트 거주비율이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다.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1인 자가 가구의 경우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67.6%로 상당히 높은 반면에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1인 자가 가구의 경우 단독주택 거주비율은 18%로 낮으며 아파트 거주비율은 63.9%에 달하고 있다. 특히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35-44세 연령층의 경우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70.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차가 가구의 경우 가구주 학력에 따른 주택유형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고졸 이하인 차가 가구와 대학 이상인 차가 가구의 경우 모두 단독주

Table 5. The change of housing type in one-person households, 1995-2005(1인가구의 주택유형 변화, 1995~2005년)

(Unit: household, %)

	1995		2005	
	households	ratio	households	ratio
detached house	1,265,633	77.1	2,056,011	64.8
apartment	186,851	11.4	668,058	21.1
multi-units house	86,129	5.2	233,048	7.3
efficiency apartment	13,290	0.8	131,199	4.2
non-residential	90,503	5.5	82,263	2.6
total	1,642,406	100	3,170,579	100

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좀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1인 차가 가구만을 대상으로 학력과 연령층에 따른 주택환경을 비교하였다. 1인 전세 가구의 경우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가구들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66.6%로 높은 반면에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가구의 경우 단독주택 비율은 53.3%로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전세 가구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어 45-54세 연령층의 경우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45.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월세로 살고 있는 1인가구의 경우 학력에 따른 주택유형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월세가구나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월세가구 모두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70%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월세로 살고 있는 1인가구의 경우

학력과는 관계없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상당히 노후된 단독주택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한편 전세가구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월세가구에서도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인가구 가운데 매우 대조적인 주택환경 특성을 보이는 집단은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25-44세 연령층이다. 25-44세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전체 1인가구 가운데 약 11%는 자가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비해 36%는 월세로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특히 이 그룹에 속하면서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경우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약 68%를 보이는 반면, 월세로 살고 있는 가구의 경우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약 67%에 달하여 주택환경 면에서 볼 때 상당히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6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도 대조적인 주택환경 특

Table 6. The ratio of housing type by home-ownership according to the education level and age of one-person households, 2005 (1인가구의 학력·연령별 주택점유 형태에 따른 주택유형, 2005)

(Unit: %, household)

		owner					rent					
		detached house	APT	multi-unit house	others	total	detached house	APT	multi-unit house	others	total	
family households		34.3	51.4	12.8	1.5	7,759,220	46.9	40.9	9.4	2.8	4,323,233	
one-person	under high school	under 25	26.4	39.5	29.7	4.5	2,618	76.5	8.3	5.7	9.5	60,798
		25-34	20.2	51.0	25.5	3.3	25,207	71.7	13.5	7.0	7.8	249,550
		35-44	29.1	47.2	20.5	3.2	50,582	72.3	14.7	6.3	6.7	261,976
		45-54	45.4	35.8	15.1	3.7	92,149	71.2	16.7	5.4	6.7	233,420
		55-64	63.5	23.3	10.7	2.5	171,290	67.8	21.3	5.6	5.4	151,812
		65+	80.0	13.9	4.9	1.2	487,888	66.7	25.1	5.6	2.6	228,689
		Total	67.6	21.5	8.9	2.0	829,734	70.5	17.4	6.0	6.1	1,186,245
	over university	under 25	18.6	54.5	19.2	7.7	8,447	78.3	6.9	5.2	9.7	189,566
		25-34	12.2	66.1	16.0	5.6	50,017	62.7	17.4	7.4	12.5	418,740
		35-44	12.6	70.1	12.4	4.8	39,733	51.5	29.0	7.3	12.2	125,524
		45-54	21.2	63.9	9.1	5.8	26,527	49.2	32.8	6.7	11.3	47,594
		55-64	30.8	54.8	8.9	5.4	15,465	50.6	33.5	6.5	9.5	14,825
		65+	33.7	54.0	8.3	4.0	14,021	49.0	37.9	6.5	6.6	8,175
		Total	18.0	63.9	12.7	5.4	154,210	63.5	18.1	6.8	11.6	804,424

Table 7. The ratio of housing type by rent status according to education level and age of one-person households, 2005 (차가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학력 · 연령에 따른 주택유형, 2005)

(Unit: %, household)

			lease					rent				
			detached house	APT	multi-unit house	others	Total	detached house	APT	multi-unit house	others	Total
family households			42.6	43.2	12.0	2.1	2,725,999	54.3	36.8	5.0	3.9	1,597,234
one-person	under high school	under 25	71.7	12.8	9.7	5.8	14,049	78.0	7.0	4.4	10.6	46,749
		25-34	63.6	19.4	11.6	5.4	80,719	75.6	10.6	4.8	9.0	168,831
		35-44	64.2	20.5	11.2	4.1	83,559	76.0	12.0	4.0	7.9	178,417
		45-54	65.9	19.8	10.2	4.0	71,892	73.6	15.3	3.3	7.8	161,528
		55-64	68.0	18.8	10.0	3.1	58,512	67.6	22.8	2.8	6.8	93,300
		65+	69.8	19.7	8.9	1.7	112,731	63.7	30.5	2.4	3.4	115,958
		Total	66.6	19.5	10.3	3.6	421,462	72.6	16.2	3.7	7.5	764,783
	over university	under 25	68.3	13.2	8.3	10.1	50,570	81.9	4.5	4.1	9.5	138,996
		25-34	55.2	23.7	9.7	11.4	194,313	69.3	12.0	5.3	13.5	224,427
		35-44	41.4	39.7	9.8	9.1	57,701	60.2	19.8	5.2	14.8	67,823
		45-54	37.1	45.9	9.0	7.9	20,774	58.6	22.6	4.9	13.9	26,820
		55-64	40.8	43.8	9.1	6.4	6,700	58.6	25.0	4.3	12.1	8,125
		65+	44.4	41.9	9.1	4.6	4,247	54.0	33.6	3.7	8.7	3,928
Total	53.3	26.9	9.5	10.4	334,305	70.8	11.9	4.9	12.5	470,119		

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가소유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와 월세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대비를 이루고 있다. 즉, 고졸 이하 65세 이상 노년층 1인가구 가운데 84%는 자가 소유의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16%는 월세로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는 1인가구의 공간분포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5. 1인가구의 특성별 공간분포

1) 1인가구의 연령층별 공간분포 특성

2005년 전국의 1인가구 비율은 20%이지만 지역 간 1인가구의 비율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전국에

서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들은 주로 군부지역으로 경남 의령군(35.6%)을 비롯한 함천군(32.4%), 신안군, 진도군, 보성군, 창녕군, 함평군 등이 30%를 상회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경우 인구의 절대적 감소와 함께 독거노인이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1인가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관악구(32.6%), 부산 중구(32.6%), 대구 중구(30.9%), 서울 중구(28.2%)도 1인가구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은 대학교가 입지해있거나 고용 중심지로 사회 초년의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같이 1인가구 비율이 유사하더라도 연령층별 1인가구 구성비율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대비를 보이는 20-39세 젊은 연령층 1인가구 비율과 65세 이상의 노년층 1인가구 비율의 공간분포 패턴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구·시·군별 20-39세 1

인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은 주로 대도시에 밀집되어 있는 반면에 65세 이상 1인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부분 농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 참조). 실제로 20-39세 1인가구 비율과 65세 이상 1인가구 비율 간의 상관계수는 -0.95로 보이고 있어 연령층에 따른 1인가구의 공간분포 패턴은 매우 높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20-39세 1인가구가 전체 1인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관악구, 강남구, 유성구, 시흥시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관악구의 경우 서울대학교가 입지해있고 고시촌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젊은 층의 1인가구 비율이 75.8%를 차지하고있다(표 8 참조). 그러나 강남구의 경우 대학교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젊은 1인 직장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반면에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북도 산간지역에 입지한 군부(임실군, 곡성군, 보성군, 담양군, 함천군, 의령군 등)의 경우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전체 1인가구의 70% 내외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수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2) 1인가구의 인구·경제·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공간분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인가구는 젊은 연령층과 노년층의 구성비율이 가장 높으며, 유사한 연령층이라 하더라도 1인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나타내주는 주택환경은 상당히 대조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인가구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공간분포 패턴을 비교하기 위하여 먼저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25-44세 젊은 연령층 1인가구 가운데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비교적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볼 수 있는 그룹과 월세로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룹을 비교하였다. 또한 고졸 이하의 65세 이상의 노년층 1인가구 가운데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룹과 월세로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룹을 비교하였다. 이렇게 같은 연령층 내에서도 양극화를 이루고 있는 집단을 추출하여 이들의 공간분포 패턴을 비교하였다(표 9 참조).

4개 그룹 간에 상관계수를 산출해본 결과 1그룹과 2그룹, 1그룹과 4그룹 간의 상관계수는 0.58로 비교적

Table 8. Comparison of top 10 regions in the proportion of one-person households aged 20-39 and above 65
(20-39세 1인가구와 65세 이상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본 상위 10위 지역 비교, 2005년)

rank	region	proportion of one-person (%)	age 20-39(%)	rank	region	proportion of one-person(%)	above age 65 (%)
1	Gwanak-gu	32.6	75.8	1	Imsil-gun	30.1	70.5
2	Gangnam-gu	27.2	69.0	2	Gokseong-gun	29.9	70.2
3	Yuseong-gu	23.4	65.6	3	Boseong-gun	31.3	69.6
4	Siheung-shi	21.7	64.4	4	Damyang-gun	26.4	69.4
5	Gwangjin-gu	22.2	64.1	5	Hapcheon-gun	32.4	69.0
6	Mapo-gu	25.4	63.1	6	Hampyeong-gun	30.9	68.9
7	Osan-shi	19.7	62.4	7	Uiryeong-gun	35.6	68.7
8	Suwon-shi	20.5	62.2	8	Namhae-gun	30.2	68.4
9	Seocho-gu	19.5	62.1	9	Jangseong-gun	26.6	68.2
10	Seo-gu in Daejeon	20.0	61.0	10	Suncheon-gun	30.4	6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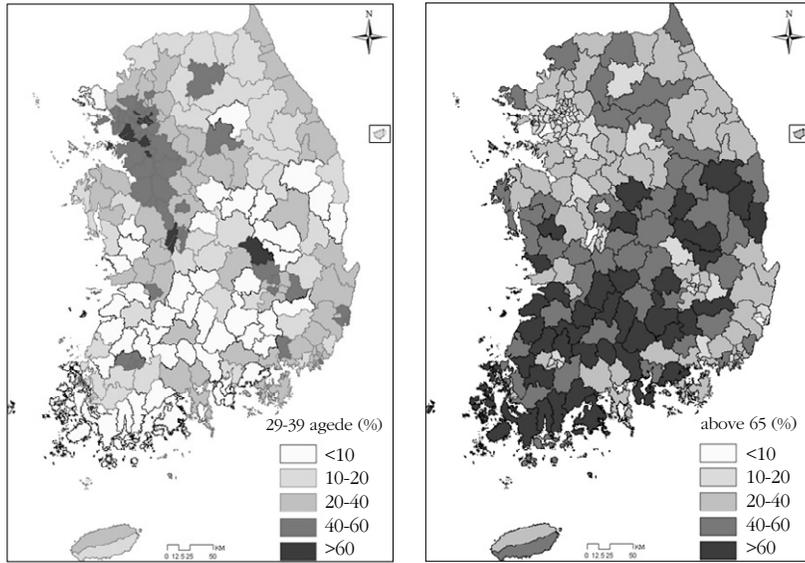


Fig 6. Spatial distribution of the proportion of one-person households aged 20-39 and above 65. (20-39세 1인가구 비율과 65세 이상 1인가구 비율의 공간분포, 2005년)

높게 나타났으며, 2그룹과 4그룹간의 상관계수도 0.45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1그룹에 속한 가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에 2그룹이나 또는 4그룹에 속한 가구들도 함께 거주하고 있는 도시들이 상당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반면에 3그룹의 경우 다른 그룹과의 상관계수는 매우 낮은 음의 계수를 보이고 있어 3그룹의 공간분포는 다른 그룹들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각 그룹별 공간분포 패턴의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하기 위하여 공간분포의 집중화(또는 분산화)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의 하나인 엔트로피 지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2그룹의 엔트로피 지수가 4.53으로 가장 작게 나타났고 1그룹(4.78), 4그룹(5.08), 그리고 3그룹의 엔트로피 지수가 5.15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엔트로피 지수가 클수록 분산화 수준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따라서 가장 집중화된 패턴을 보이는 그룹은 2그룹이며, 가장 분산화된 패턴을 보이는 그룹은 3그룹이라고 볼 수 있다. 2그룹의 경우 232개 구·시·군 가운데 상위 10%에 속하는 23개 지역이 2그룹 전체 가구수의 48.7%를 차지하며, 상위 30%에 속하는 69개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전체의 83%에 달할 정도로 소수 지역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반면에 가장 분

산화된 패턴을 보이는 3그룹의 경우 상위 10%에 해당하는 지역의 점유율은 26.5%이며, 상위 30%에 해당하는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60%로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그룹별로 누적된 가구수가 전체 가구수의 80%에 해당하는 지역들만을 추출하여 지도화하였다. 그 이유는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각 그룹에 속한 1인가구수가 너무 적어서 오히려 모든 지역의 분포를 다 표현하여 지도화하는 경우 정

Table 9. Grouping of one-person households by socio-economic demographic characteristics (1인가구의 인구·경제·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그룹화)

group	characteristics(age, education level, ownership, housing type)
group 1	age 25-44, university, owner, APT
group 2	age 25-44, university, rent, detached house
group 3	above 65, under high-school, owner, detached house
group 4	above 65, under high-school, rent, detached house

확한 분포패턴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먼저 25-44세 연령층으로 대학 이상의 학력을 지니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1그룹의 공간분포 패턴을 보면 수도권과 광역시 및 지방 대도시들이 대부분이며 군부에는 1그룹에 속한 가구가 거의 없는 편이다. 1그룹에 속한 1인 가구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노원구,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강남구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국에서 상위 10%에 속한 지역을 보면 주로 수도권 도시와 광역시 자치구 및 지방 대도시인 천안, 전주, 청주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한편 25-44세 연령층 가운데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월세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2그룹에 속한 1인 가구는 대학을 갓 졸업하였거나 졸업을 앞두고 있는 계층으로 직장을 찾고 있는 흔히 말하는 산업예비군으로 볼 수 있으며 젊은 연령층 내에서도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로 볼 수 있다. 2그룹의 공간분포 패턴을 보면 대학생과 고시생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알려진 관악구에 가장 두드러지게 집중되어 있고 전국 상위 10%인 23개 지역에 거의 절반가량이 집중되어 있다. 상위 10%에 해당하는 지역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대학이 입지해있는 지역들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젊은 연령층의 고학력자들은 대학을 졸업한 이후 직장을 찾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의 대학가 주변의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와 같이 대학이 없는 지역에도 1인 가구가 밀집되어 있는데, 이는 아직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못한 이 지역에 직장을 갖고 있는 사회 초년생들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65세 이상 연령층 가운데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사는 3그룹의 공간분포를 보면 주로 도농통합시이거나 군부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특히 대부분이 전라남북도나 경상남북도 군부지역에 3그룹에 속한 가구들이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이 그룹에 속한 가구들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사는 농촌 독거노인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65세 이상의 연령층 가운데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월세로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4그룹의 공간분포 패턴을 보면 3그룹과는 달리 주로 대도시에 분포하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되어 살고 있

는 전형적인 도시 독거노인들이라고 볼 수 있다. 4그룹의 경우 부산진구, 제주시, 마산시, 대구 동구, 성남시 순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부산과 대구 자치구에 상당히 많은 1인가구가 집중되어 있다.

한편 각 그룹에 속한 1인가구의 절대수가 아니라 도시별로 각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하여 각 그룹별 상위 10%에 속한 지역을 살펴보면 절대 가구수로 본 상위 10% 지역과는 다소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먼저 1그룹의 비중이 높은 상위 10% 지역을 보면 노원구가 역시 6.4%로 가장 높으며, 계룡시, 용인시, 군포시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3위의 대구 북구가 3.3%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1그룹에 속한 1인가구가 각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으며 전국 평균치는 1.4%에 불과하다. 2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위 10% 지역을 보면 관악구가 25.9%로 가장 두드러지게 높으며, 2위인 강남구의 비중(15.6%)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다. 이는 관악구에 25-34세 연령층 1인가구가 워낙 많기 때문이며 관악구의 경우 1인가구 4명중 1명은 산업예비군에 속한 1인가구들이라고 볼 수 있다. 23위의 인천 연수구도 1인 가구에서 2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9.1%로 전반적으로 각 도시별 1인 가구에서 2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1그룹에 비해 높은 편이다.

반면에 3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위 10% 지역을 보면 모두 군부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곡성군(66.3%)를 필두로 하여 23위 군위군의 비율도 57.6%로 매우 높으며, 상위 30%에 해당되는 69위 지역의 비중도 35.6%로 매우 높다. 마지막으로 4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위 10% 지역을 보면 부산 강서구(10.2%), 대구 중구(7.0%), 기장군, 대구 서구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위 10%에 속하는 23개 지역 가운데 부산광역시의 10개 자치구가 속해 있으며, 대구광역시의 4개 자치구도 속해있다. 이는 부산광역시 16개 자치구 가운데 10개 자치구, 대구광역시 8개 자치구 가운데 4개 자치구에 상당히 많은 도시 독거노인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들 자치구들은 물리적으로 상당히 쇠퇴한 도시로 알려져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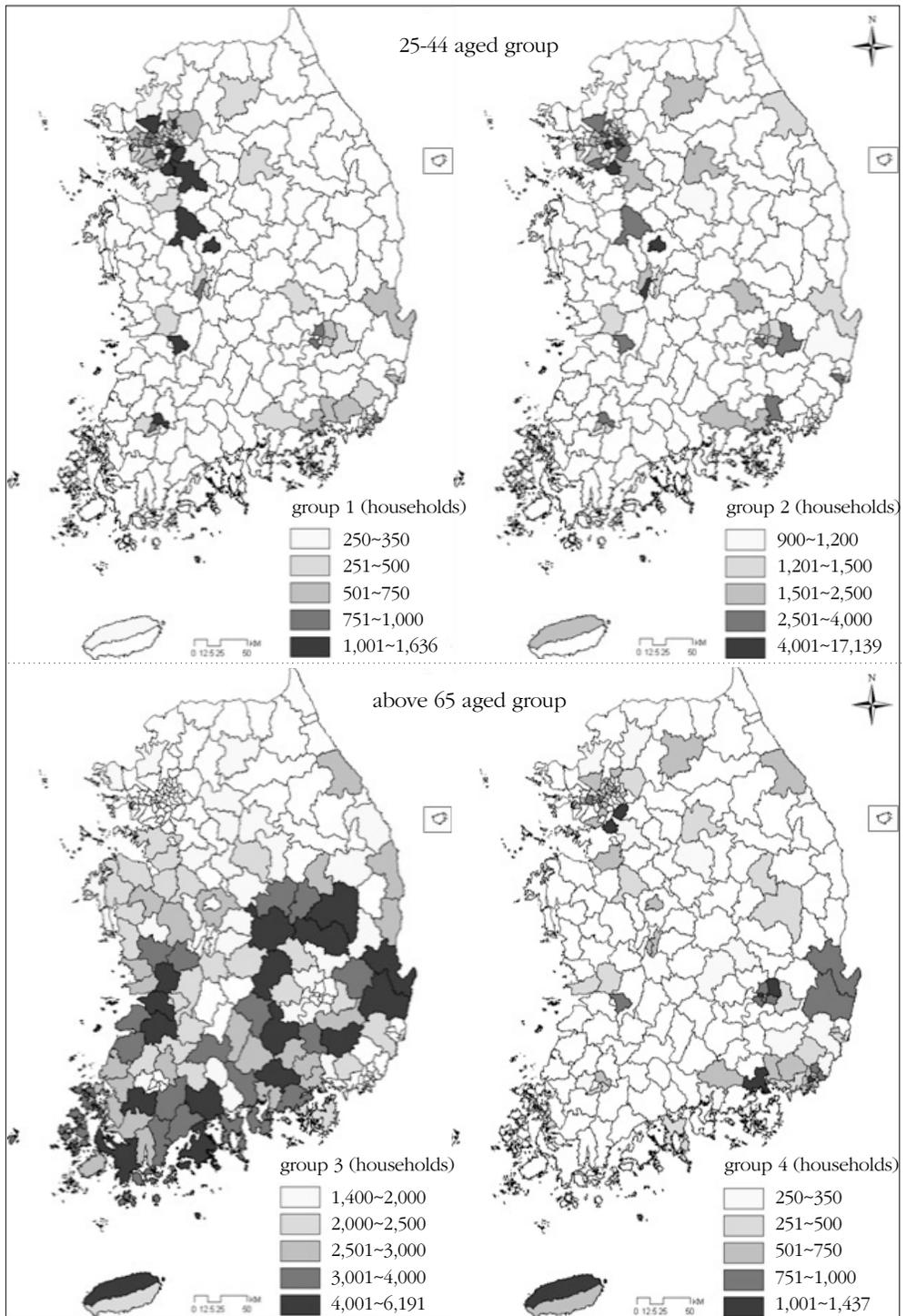


Fig.7. Comparison of spatial distribution patterns of one-person households by groups, 2005
(각 그룹별 1인가구의 공간분포 패턴 비교, 2005년)

Table 10. The number and proportion of one-person households of highest 10% by groups, 2005
(각 그룹별 1인가구수와 가구비중으로 본 상위 10% 지역 분포, 2005년)

a number of one-person					proportion of one-person				
rank	1 group	2 group	3 group	4 group	rank	1 group	2 group	3 group	4 group
1	Nowon-gu	Gwanak-gu	Gyeongju shi	Busanjin-gu	1	Nowon-gu	Gwanak-gu	Gokseong-gun	Gangseo-gu
2	Goyang shi	Gangnam-gu	Goheung-gun	Jeju shi	2	Gyerong shi	Gangnam-gu	Boseong-gun	Jung-gu in DG
3	Suwon shi	Suwon shi	Sangju shi	Masan shi	3	Yongin shi	Yuseong-gu	Uiryeong-gun	Gijang-gun
4	Yongin shi	Cheongju shi	Pohang shi	Dong-gu in DG	4	Gunpo shi	Dongjak-gu	Hampyeong-gun	Seo-gu in DG
5	Gangnam-gu	Seo-gu in DJ	Naju shi	Seongnam shi	5	Seo-gu in GJ	Gwangjin-gu	Namhae-gun	Seogwipo shi
6	Cheonan shi	Dongjak-gu	Jeongeup-gun	Seo-gu in DG	6	Namyangju shi	Gyeongsan shi	Imsil-gun	Ulleung-gun
7	Jeonju shi	Mapo-gu	Haenam-gun	Suwon shi	7	Buk-gu in US	Seocho-gu	Sunchang-gun	Dong-gu in DG
8	Buk-gu in GJ	Gwangjin-gu	Miryang shi	Buk-gu in DG	8	Seocho-gu	Seo-gu in DJ	Hapcheon-gun	Jinhae shi
9	Anyang shi	Seongnam shi	Gimje shi	Pohang shi	9	Gwangju shi	Nam-gu in US	Gangjin-gun	Dong-gu in BS
10	Cheongju shi	Changwon shi	Suncheon-gun	Dalseo-gu	10	Dobong-gu	Nam-gu in DG	Damyang-gun	Jung-gu in US
11	Seongnam shi	Jeonju shi	Jinju shi	Geumjeong-gu	11	Gyeyang-gu	Changwon shi	Goheung-gun	Geumjeong-gu
12	Seocho-gu	Ansan shi	An-dong shi	Dongdae-mun-gu	12	Anyang shi	Mapo-gu	Sancheong-gun	Dongnae-gu
13	Bucheon shi	Gyeongsan shi	Uiseong-gun	Haeundae-gu	13	Dalseo-gu	Jung-gu in DG	Jindo-gun	Busanjin-gu
14	Seo-gu in DJ	Seocho-gu	Hapcheon-gun	Jeonju shi	14	Goyang shi	Suseong-gu	Yecheon-gun	Yeonje-gu
15	Dalseo-gu	Cheonan	Jeju shi	Nam-gu in DG	15	Nma-gu in GJ	Dong-gu in GJ	Sinan-gun	Jeju shi
16	Seo-gu in GJ	Goyang shi	Iksan shi	Bucheon shi	16	Buk-gu in GJ	Chuncheon shi	Jangheung-gun	Nam-gu in DG
17	Haeundae-gu	Dalseo-gu	Gimcheon shi	Yeongdeungpo-gu	17	Haeundae-gu	Seo-gu in GJ	Uiseong-gun	Seo-gu in BS
18	Buk-gu in DG	Dongdae-mun-gu	Changnyeong-gun	Gyeongju shi	18	Gwacheon shi	Jeonju shi	Jangseong-gun	Yeongdo-gu
19	Gangseo-gu	Nam-gu in US	Boseong-gun	Suseong-gu	19	Gimpo shi	Seodae-mun-gu	Jangsu-gun	Sasang-gu

a number of one-person					proportion of one-person				
rank	1 group	2 group	3 group	4 group	rank	1 group	2 group	3 group	4 group
20	Yeongdeungpo-gu	Songpa-gu	Yeosu shi	Dongnae-gu	20	Yongsan-gu	Gwacheon shi	Cheongdo gun	Masan shi
21	Songpa-gu	Buk-gu in GJ	Yeongcheon shi	Sasang-gu	21	Uiwang shi	Dalseo-gu	Hamyang gun	Dongducheon shi
22	Bupyeong-gu	Seodaemun-gu	Gochang gun	Jinju shi	22	Seo-gu in IC	Gumi shi	Gochang gun	Yeongju shi
23	Mapo-gu	Chuncheon shi	Nonsan shi	Gimhae shi	23	Buk-gu in DG	Yeonsu-gu	Gunwi gun	Hanam shi
highest 10%	23,269 (38.2%)	95,564 (48.7%)	103,454 (26.5%)	21,202 (29.5%)	range of proportion of cites in highest 10%				
					range	6.4~3.0	25.9~9.1	66.3~57.6	10.2~4.1
highest 30%	46,965 (77.1%)	163,448 (83.3%)	235,312 (60.3%)	47,983 (65.0%)	range of proportion of cites in highest 30%				
					range	6.4~2.1	25.9~5.2	66.3~35.6	10.2~2.8
Total	60,911	196,289	390,108	73,874	mean	1.4%	4.0%	23.4%	2.4%

Note. SE-Seoul, BS-Busan, DG-Daegu, IC-Incheon, GJ-Gwangju, DJ-daejeon, US-Ulsan

5. 결론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1인가구의 인구·경제·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장패턴을 파악하고, 1인가구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공간분포 특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1인가구의 는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교육수준에 따라 상당히 차별화된 성장패턴을 보이고 있다. 1인가구 증가율을 혼인상태별로 비교해 보면 이혼에 의한 1인가구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30대와 40대 두 연령층에서 지난 10년동안 증가된 1인가구수의 약 42%를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30-40대에서의 1인가구의 절대적인 증가는 미혼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0-40대 초반까지도 미혼 1인가구가 증가되고 있는데, 이는 독신 풍조가 확산되어 자발적으로 나홀로 삶을 선택한 싱글도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결혼 시기를 늦추거나 아예 결혼을 포기하는 싱글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1인가구 증가율을 기준으로 하여 보면 지난 10년 동안 최고령층인 80세 이상의 노년층의 증가율이 24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통적 가치관 및 경로사상이 약화되면서 나홀로 거주하는 노인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젊은 남성 1인가구의 경우 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에 노년 여성 1인가구의 경우 농촌 거주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대비를 보이고 있다.

구·시·군별 20-39세 1인가구 비율과 65세 이상 1인가구 비율 간의 상관계수는 -0.95로 나타나고 있어 연령층에 따른 1인가구의 공간분포 패턴은 매우 대조적인 분포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말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1인가구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공간분포 패턴을 비교하기 위하여 가장 대비를 이루고 있는 젊은 연령층의 2개 집단과 노년층의 2개 집단을 추출하여 이들의 공간분포 패턴을 비교하였다. 먼저 25-44세 연령층 가운데 대학 이상의 학력을 지니고 자가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1그룹에 속한 가구들을 보면 주로 수도권과 광역시 및 지방 대도시인 천안, 전주, 청주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한편 25-44세 연령층 가운데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월세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2그룹에 속한 가구들을 보면 주로 대학이 입지해있는 지역들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젊은 연령층의 고학력자들은 안정된 직장을 찾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대학가 주변의 물리적인 주거환경이 다소 떨어지는 단독주택에서 독거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또한 65세 이상 연령층 가운데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사는 3그룹에 속한 1인가구의 공간분포를 보면 주로 농촌 독거노인들이다. 그러나 65세 이상 연령층 가운데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월세로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4그룹에 속한 1인가구의 공간분포 패턴을 보면 주로 대도시에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회적으로도 고립되어 살고 있는 전형적인 도시 독거노인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1인가구의 인구·경제·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공간분포를 보면 상당히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인가구 자체가 매우 이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룹에 속하는 1인가구가 집중분포되어 있는가를 반영하여 해당 지자체는 적절한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촌의 독거노인을 제외한 다른 그룹에 속한 1인가구들은 주로 수도권이나 광역시 및 지방 대도시에서 집중되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가구의 양극화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1그룹과 2그룹에 속한 1인가구들은 동일한 도시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1인가구 그룹 가운데 가장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그룹은 2그룹과 3그룹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노동시장에 편입되지 못한 채 대도시의 대학가 주변의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는 산업예비군 그룹과 상당히 심각한 빈곤 속에서 고립되어 살고 있는 가장 취약계층인 도시 독거노인 그룹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의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비교적 높은 편인데 비해 대학가 주변에서 월세로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는 산업예비군에 속한 1인가구에 대한 관심은 다소 낮은 편이다. 독거노인이 집중 분포되어있는 지역의 경우 이들을 돌보기 위한 사회복지 자원 마련과 복지 서비스 제공이 시급한데 비해 고학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낡은 단독주택에 월세로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는 일자리 기회와 기초적인 생

계 대책이 가장 급선무일 것이다. 그러나 대도시의 대학가 주변에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는 젊은 고학력 산업예비군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고급 인력을 필요로 하는 중소도시의 노동력 공급의 부족현상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이들을 위한 보다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주

1)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정의하고 있는 1인가구는 독신가구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있어도 동거하지 않고 사는 기러기 가족이나 주말 부부 등도 포함되고 있음. 따라서 배우자가 없는 1인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있는 주말부부나 기러기가족을 제외하여야 분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함. 그러나 구·시·군 공간단위에서 배우자가 있는 1인가구에 대한 자료는 센서스 원시자료를 이용하여야만 가능하지만 통계청에서는 표본자료가 아닌 전수자료는 제공하지 않음. 이에 따라 본 연구대상인 1인가구에는 11.6%에 해당하는 배우자가 있지만 비동거하고 있는 1인가구가 포함되어있음.

참고문헌

- Kwon, J. A., Lee, Y. J., and Choi, H. K., 2007, The Prospect of Housing Demand and Supply for One-person households, Korea housing institute, Seoul.
- Kim, H. Y., 2007, Sense of Family and Living Conditions of Unmarried One-person Households,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Seoul.
- Banks, L., Haynes, P. and Hill, M., 2009, Living in single person households and the risk of isolation in later lif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Later Life*, 4(1), 55-86.
- Bennelt, J. and Dixon, S., 2006, *Single Person Households and Social Policy: Looking Forwards*, York: Joseph Rowntree Foundation.
- Beland, F., 1987, Living arrangement preference among elderly people, *Gerontologist*, 27(6), 797-802

- Byun, M. r., Shin, S. Y. and Cho, K. J., 2008, *Single person household and urban policy in Seoul*, Seoul development institute, Seoul.
- Chandler, J., Williams, M., Maconachie, M., Collet, T. and Dodgeon, B., 2004, Living alone: its place in household formation and change, *Sociological Research Online*, 9(3), <http://www.socresonline.org.uk/9/3/chandler.html>
- Cha, K. W., 2006, Economic structure of male one-person household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4(1), 253-269(in Korean).
- Cho, J. H. and Kim, J. W., 2010,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housing demand of single-person households, *Journal of the Korea real estate analysis association*, 16(4), 33-52(in Korean).
- Cho, M. E., 2002, A study of housing design guidelines for the single household,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0(6), 219-227(in Korean).
- Glick, P., 1994, Living alone during middle adulthood, *Sociological Perspectives*, 37(3), 445-457.
- Gram-Hanssen, K., Scherg, R. and Christensen, R., 2009, One-person households: a growing challenge for sustainability and housing policy, Paper presented at the ENHR 2009 conference in Prague, Workshop 7: Challenges for Housing and Urban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Perspective of Rapid Global Change.
- Hall, R, Ogden, P. and Hill, C., 1997, The pattern and structure of one-person households in England Wales and French, *International Journal of Population Geography*, 3(2), 161-181.
- Hall, R. and Ogden, P., 2003, The rise of living alone in inner London trends among the population of working age, *Environment and Planning A*, 35(5), 871-888.
- Haurin, J., Haurin, D., Hendershortt, P. and Bourassa, S., 1997, Home or alone: the costs of independent living for youth, *Social Science Research*, 26, 135-152.
- Kaufman, J., 1994, One person households in Europe, *Population*, 49(4-5), 935-938.
- Kendig, H. and McCallum, J., 1986, *Greying Australia: Future Impacts of Population Ageing*, Migration, Committee, National Population Council, Australian Government Publishing Service, Canberra.
- Kim, O. Y., and Moon, Y. K., 2009, Housing analysis of one person household, *Journal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nstitute of Korea*, 7(2), 37-53(in Korean).
- Kim, Y. H. and Chae, J. S., 2005, The financial status of single household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3(1), 85-103(in Korean).
- Koesoebjono, S., 1984, Trends of one-person households in Netherlands, 1960-1981: a demographic analysis, *Population and Family in the Low Countries, IV*, Voorburg, Netherlands. 101-133.
- Kramarow, E., 1995, The elderly who love alone in the United States: historical perspectives on household change, *Demography*, 32(3), 335-352.
- Lee, Y. J., and Kim, S. M., 2004, The economic status and an analysis of the expenditure of the single elderly household of men and wome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2(12), 93-106(in Korean).
- Ogden, P. and Hall, R., 2000, Households, reurbanization and the rise of living alone in the principal French cities, 1975-90, *Urban Studies*, 37(2), 367-390.
- Park, J. H., 2007, *A study on the analysis of distribution an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one person household in Seoul*, Masters thesis, The university of Seoul.
- Quintano, C. and D'Agostino, A., 2006, Studying inequality in income distribution of single-person households in four developed countrie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52(4), 525-546.
- Shim, Y., 2002, An exploratory study on the economic

- life of single household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0(6), 197-208(in Korean).
- Shin, E. J., and Ahn, K. H., 2010, The factors affecting on the residential location choice of single person households across income levels, *Journal of Korea planners association*, 45(4), 69-79(in Korean).
- Shin, S. Y., 2010, A study on the spatial distribution of one person households, *Journal of Korea planners association*, 45(4), 81-95(in Korean).
- Song, Y. J., 2007, Characteristics of the one-person households of the elderly during widowhood, *The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18(1): 147-160(in Korean).
- Statistics Korea, 2009, Social Survey(Welfare · Culture and Leisure · Income and Consumption · Labor · Social Participation).
- Sung, J. M. and Lee, Y. J., 2001, The economic status and inequality of the single elderly household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9(2), 111-130(in Korean).
- Wall, R., 1989, Leaving homes and living alone: an historical perspective, *Population Studies*, 43(3), 369-389.
- Williams, J., 2007, Innovative solutions for averting a potential resource crisis: the case of one-person households in England and Wales, *Environment,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9, 325-354.
- Witte, J. and Lahmann, 1988, Formation and dissolution of one-person households in the United States and West Germany,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73(1), 31-42.
- Wulff, M., 2001, Growth and change in one person households: implications for the housing market, *Urban Policy and Research*, 19(4), 467-489.
- Young, C., 1987, *Young People Leaving Home in Australia: The Trend Towards Independence*, Department of Demography,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Canberra.
- Yuh, Y. K., 2003, Consumption patterns of the elderly couple and elderly singl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1(5), 1-12(in Korean).
- 교신: 이희연, 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이메일: leehyn@snu.ac.kr, 전화: 02-880-9322, 팩스: 02-871-8847)
- Correspondence: Lee Hee Yeon,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599, Gwanangno, Gwanak-gu, Seoul, 151-742, Korea(e-mail: leehyn@snu.ac.kr, phone: +82-2-880-9322, fax: +82-2-971-8847)
- 최초투고일 2011. 5. 21
수정일 2011. 6. 27
최종접수일 2011. 8. 19